



■ 발표 1.

# 협동조합은 오늘날 대안일 수 있는가?

- 일본 '워커즈 코프'의 경험에서 -

오카야스 기사부로

협동총합연구소 이사장





# 협동조합은 오늘날 대안일 수 있는가?

## - 일본 '워커즈 코프'의 경험에서 -

오카야스기사부로(협동총합연구소 이사장)

### 1. 조직의 개요

#### 1) 협동총합연구소(약칭 :「협동총연」)

(1) 영문표기 : “Japan Institute of Co-operative Research (JICR)”

#### (2) 비영리·협동노동을 추진하는 싱크 탱크

협동총합연구소는 노동자, 시민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율적으로 사업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싱크 탱크입니다. 연구소는 일본 유일의 '노동자협동조합'전문연구기관입니다.

(3) 약 500회원(개인/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구소의 5개의 원칙

- ① 인류적 시야에서의 원칙
- ② 변혁의 입장에서의 원칙
- ③ 인간발달 중시의 원칙
- ④ 실천과 연구의 결합의 원칙
- ⑤ 자립의 원칙

○ 연구소 기관지의 발행 : “협동의 발견”(월간)

#### 2) 일본 노동자 협동조합(워커즈 코프)연합회(약칭 : 「일본노협련」)

(1) 영문표기 : “Japan Workers' Co-operative Union (JWCU)”

#### (2) 비영리/협동노동의 전국 연합회

일본노협련은, 노협(워커즈 코프)과 고령자협동조합의 조직적인 확립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협동노동의 보급과 발전, 회원간의 연대와 활동지원 및 지도, 나아가 공적 영역에의 대응, 새로운 노협 설립의 지원, 그리고

FEC 자급권의 확립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회원입니다.

(3) 조직 및 사업 규모

- 조합원 : 49,205명(2010.3.31현재). 이중 취 조합원 : 11,867명
- 회원 사업액 총계 : 270억 370엔
- 주요사업내용 : 고령자 복지, 취업지원, 육아지원
- 건물종합관리, 식·농·환경 관련, 협동조합 간의 제휴 등

(4) 독자적인 원칙의 제정

운영 방법에서 다른 단체에는 없는 노협의 특징은, ICA원칙에 더하여, 노협 독자의 운영 원칙을 노협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조합원 전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 최신의 '정의, 사명, 원칙'은 2002년에 제정.

### 3) 협동노동운동의 연혁

(1) 1970년대

- 각지에서 실업자·중년고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단' 탄생.
- 니시노미야(관서지방) 키타큐슈(북구주 지방) 등지에서 36단체로→1979년 '전국협의회' 결성

(2) 1980년대 : 노동자가 사업·경영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고민.

- 1980년 : ICA 모스크바 대회 '레이로드 보고'.
- 1982년 : 전국협의회 직영의 '직할사업단'(병원의 종합관리).
- 1983년 : 이탈리아에 조사단.
- 1986년 : 노협 조직에로의 발전을 결정.
- 1987년 : 모델 노협으로서 '센터 사업단' 설립(생협물류 등).

(3) 1990년대 : '노동자협동조합'으로 규정. 그 사회적 의미를 고민.

- 1992년 : '새로운 7개 원칙' 제정. ICA 가입.
- 1995년 : 미에현에서 고령자 협동조합 탄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생협법인화).

(4) 2000년대 : '협동노동의 협동조합' 규정, 협동노동의 확산.

- 2000년 : 정부의 간병보험제도 개시. '지역복지사업소 만들기' 확산.
- 2002년 : 한일 월드컵. 현재의 '원칙' 제정.  
고령협연합회 결성.
- 2004년 : 지정 관리자 제도에 의한 수탁 및 양육지원사업 확산.

#### 4) 협동노동운동은 조직원칙 확인의 과정이기도 하다. (별첨 '조직 원칙의 역사'참조)

- 1979년 : '중년고년 고용·복지사업단 전국협의회' 결성  
→ '사업단 7개 원칙'
- 1986년 : 협의회에서 연합회로. 노협에로의 조직 발전을 결정.  
→ '새로운 7개 원칙(개정판)'
- 1992년 : ICA 가입  
→ '노동자협동조합 7개 원칙'
- 2000년 : 개호보험 출발, 시민회의 발족.  
→ 2002년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의 정의, 사명, 지침'

## 2. 경영과 노동을 둘러싼 제반 문제

### 1) 전통적 경영론에 대한 이견(objection)

- '고용자로서의 협동조합' : '협동조합 사업의 심각한 약점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고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있다.' '그것은 노동조건이 나빠서도 아니고, 임금이 낮아서도 아니며, 노사관계가 나빠서도 아니다.' '약점은 이들 중 어느 것도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업과 협동조합과의 사이에 고용자와 종업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에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모든 협동조합은, 틀에 박힌 고용자 이상의 것으로 되려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Dr. Laidraw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1980, ICA)
- 주식회사든 협동조합이든 사업체의 경영은 전통적으로 '사람, 물건,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고용 노동 관계에서는 당연한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사람'이란 항목에 이견을 제시한 것이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 2) '다양한 일하는 방식'이란 명분으로 비정규고용의 확대, 차별의 고정화

- 1995년 당시의 일본경영자연맹(일경련)이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에서 '장기축적능력형, 고도전문능력활용형, 고용유연형의 3 그룹의, 비정규고용을 다수로 하는 노동자의 계층화'를 제언.
- 그 10년 전인 1986년 제정된 '노동자 파견법'은, 1999년의 개정으로 원칙 자유화되고, 2004년에 이르러 제조 업무 (영역)에서도 자유화되었다.
- 삼각계약('삼각고용관계')에 의해, 고용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위장고용, 위장청부가 만연하게 된다. 노동의 질 저하. 빈약한 사회보장. 이미 기존의 노동법에서는 해결하지 않는 '복잡한 노사관계, 누가 사용자(고용자)인지가 불명확한 노동 실태.
- 동경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드러난 '다중 하청' '원전 노예'의 실태.

### 3) 노동문제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책임(SR)의 국제적 접근

- Global social compliance programme (GSCP)(국제적인 사회적 준수 프로그램)  
(제품 입하 시, 생산 공장 등의 ILO 노동 기준 준수)
- reference cord(지침 코드)의 기본 목적은 국제 노동 기준과 decent work (괜찮은 일자리)의 온전히 준수하는 supply chain(공급망)을 통해서, 공정한 노동조건을 달성할 것. 2007년 1월 월마트, 영국의 데스코, 프랑스의 까르푸르, 독일의 메트로에서 시작했다.
- ISO26000'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인증의 기구가 아님)  
"ISO 26000 Social Responsibility: 7 core subjects"(사회적 책무:7개의 핵심 주제)  
지침은 '조직은 상호 의존하는 7개의 중핵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규정.
  - 조직 통치
  - 인권
  - 노동 관행
  - 환경
  - 공정한 사업 관행
  - 소비자 과제
  - (지역)공동체 발전에 적극적 참여
- "ECOLOGICAL INTELLIGENCE How Knowing the Hidden Impacts of what We Buy Can Change Everything", Daniel Goleman  
지구생태계에 대한 정보 :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다니엘 골맨
  - 지구권에의 영향 (geosphere impact: 토양, 대기, 물, 기후까지도)
  - 생물권에의 영향 (biosphere impact: 우리들의 육체, 다른 동식물의 생체)
  - 사회적 영향 (social impact: 노동환경에 대한 고려 등)

## 3. 새롭게 일하는 방식, 협동노동에 대하여

### 1) 협동노동과 그 협동조합의 위치

- '삼위일체'와 '3개의 협동' :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이란, 일하는 사람들·시민이, 모두 함께 출자하고, 민주적으로 경영하고, 책임을 나누어 가지며, 인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창출하는 협동조합입니다.
- 출자, 노동, 관리의 '3위 1체'.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한다.  
(요주의 : 노동자가 경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협동, 이용자와의 협동, 지역과의 협동이라고 하는 '3개의 협동'

## 2) 협동노동의 핵심 : 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3개의 협동'과 '자그마한 전체'

- '3개의 협동'은, 사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주축으로 실현한다.
  - "Conducive Products", "Co-Production" ('좋은 생산품', '협동생산)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 사업에 있어서 '고객만족형'이란 평가 기준을 뛰어넘는, '이용자와 함께 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자세와 입장.

기본철학 : '노동자는 성장한다'라는 신념

- '새로운 Public(공공)' : 시민 주체의 새로운 공공 개념 건설에로의 도전
- '자그마한 전체' : '일로부터 지역을 볼 것인가?' '지역에서부터 일을 볼 것인가?'  
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3개의 협동과 연대·네트워크로 인하여, 그 사업소는 그 지역에서 작지만은 전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
- 회사와 NPO 그리고 협동노동의 '커뮤니티 비지니스'
  - 회사나 NPO의 경영은, 기본적으로 리더(임원)이 총체적 책임을 진다.
  - 협동노동은, 출자를 통하여, 일하는 사람(직원)도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
  - 이 구조가 '3개의 협동'을 촉진한다.

## 3) 협동노동·'3개의 협동'의 충격

- 장애인 취로와 취로 지원
- 장애인도 출자하고, 취로조합원이 된다(책임을 지게 한다)는 데에 부모의 감동
- '콩 나무'의 경우 : 양호학교 헬퍼
  - 강좌(생도, 부모, 교사) → 계속 취로 이행 지원 사업소 사업
  - 청년층 자립원 : 지역 주민의 참가, 연극 발표회, 유채꽃 프로젝트
- [http://www.cecop.coop/IMG/pdf/Microsoft\\_PowerPoint\\_-\\_Kisaburo\\_Okayasu-2.pdf](http://www.cecop.coop/IMG/pdf/Microsoft_PowerPoint_-_Kisaburo_Okayasu-2.pdf)
- 지정관리(위탁)에서의 이용자의 참가
-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
- '공공시설'의 위상, '주체 창출과 마을 만들기'의 거점으로
- ex1. 아동관 : 놀이터인가? 양육의 관점에서 본 '마을 만들기(마을재건)'의 거점인가?
- '느낌을 소중히 살려 애길 나눈다'(예 : 도시락을 못 가져오는 아이들)
- ex2. 노인복지관 : 가라오케?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지역을 만드는 힘이 되게 한다.
- '지원받는 존재에서, 지원하는 존재로'
- 보족 : 이탈리아 영화 'Si può fare'의 충격

2008년 이탈리아에서 히트치고 주목된 작품으로, 정신장애자들이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사업을 주선하여 성공하고, 인생을 되찾아 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한 조직은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다.

## 4. 다양한 협동조합의 존재이말로 힘의 원천(복합 재해 부흥 때에도)

### 1) '다양한 이종 협동조합의 집합체'(레이로드 보고)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ex.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

- 협동조합 간 연대는, 사업 거래로서는 '실현'하고 있지만,
- 거친 표현으로 말한다면, 레이로드의 제기는, UN에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에 의해'로 시작하는 일련의 UN 결의

### 2) UN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IYC)'로 설정한 의미

- UN은 협동조합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 1992년(UN의 '세계 협동조합의 날'설정의 해) 이후 거의 2년 단위로 UN 총회 결의에서 '협동조합의 진흥'이 제기되고 있다.
- 1994년 이후의 UN 결의는 일관하여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에 의해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선주민 등 모든 사람들의 빠짐없는 온전한 참가를 촉진하는 조직이란 것'을 계속 확인해 오고 있다.
- 2002년에는 세계체제의 변화(소련 등의 붕괴, 글로벌리즘) 이후를 꿰뚫어 보고, ILO 총회에서 '협동조합 진흥 권고'를 채택했다. 그 토의에서의 키 워드는, informal economy(비공식 경제)와 decent work(괜찮은 일자리) 등으로 대부분은 일본의 상황으로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던' 빈곤 문제, informal labour(비공식 노동), working poor(워킹 푸어) 등등의 인식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OECD보고, 리먼 쇼크 이후)
- A/RES/64/113으로 UN총회에서 채택(2009년 12월 18일)
- 각 나라와 정부에 대해, 협동조합의 진흥, 사회공헌에 관한 인지도 향상을 요청.  
정부에 대해 법적 행정적 규제를 검토해 줄 것을.  
사회적 기업과 동질의 활동의 장을 보장할 것을.  
그 외 각국 정부 국제기구에의 요청을 열거하고 있다.
- ICA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세계적 기준 : 최종판'의 승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준은 ICA이사회에 제출되어, 맨체스터에서의 2012년 올해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

### 3) 일본에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검토·연구(연구소의 도전)

- 자연 재생 에너지 개발, 그 사업의 담당자로서의 협동조합의 가능성  
'자원은 누구의 것인가?', 정부 환경성 위탁 연구 사업 → 소규모 수력발전 등
- 피해지역인 동북지방의 부흥·재생과 새로운 일본사회의 창조  
'삼림(업)·농업(농사)·바다' 프로젝트  
후쿠시마 → 산지 소비지 연대, 부흥을 위한 협동조합, 재생 에너지 사업 등

- '식·농업·환경'사업, '제6차 산업' 분야에서의 협동조합의 가능성  
미곡 생산, 쌀가루 빵, 유채 프로젝트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데에 협동조합이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사회적 기업, 특히 노동 통합형 사회적기업(WISE)에서의 협동조합의 우위성  
→ 청년층 지원, 생활보호수급자애의 생활·취로 지원, 장애인 취로 지원

#### 4) '수직형 협동조합'의 극복이 지역과 일본을 바꾼다.

2012세계협동조합의 해의 다양한 기획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각 단위 사업체에 강력히 요청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 그 첫째 계기로서는, 각계의 저명인사들과 함께, 모든 협동조합의 결집으로 IYC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전국실행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데에 있다.
- 둘째 계기로는, 대지진 재난, 거대 쓰나미, 원전 피해 등 거대한 복합 재해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협동조합의 공헌은, 각각의 협동조합이 개별적으로는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역으로 타종 협동조합이 협력했을 때, 예를 들면 '협동조합 부흥회의'와 같은 활동에서(만이), 지역에서의 협동조합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 셋째 계기로, 연합회는 협동조합을 세상에 '보이게끔 하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이다. 예를 들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나 고용문제, 원자력 에너지 문제 등, 국민들의 가장 관심을 가지는 국가정책에, 협동조합으로서의 통일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면, 협동조합은 국가정책에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지역과 지방자치체의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의 협동조합은 현실의 정치와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짊어지는 협동조합이다.

[요약]

1. 노협(워커즈 코프)에는, 주체 면에서 독자의 운영원칙이 필요하다.  
→ 타율적 룰이 아니라, 자립적 룰에 의한 지속성의 담보  
→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ICA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세계기준'이 중요
2. 지역과 연대한 '3위1체', '3개의 협동'의 실천에 의해, 워커즈 코프(노협)에 사회성·지속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  
→ Multi-Stakeholde 형 (다수의 이해당사자 모델) 협동조합(다원적 협동조합원 제도의 채용으로)
3.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존재는 장애인·실업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 참여에 있어서 필수이다.  
→ 협동조합 지역사회, WISE 등
4. 지역사회와 세계를 잇는다. 기타
5. 이와 같이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고, 대안이여야만 한다.

## 주제발제1(원본)

# 協同組合は今日の代案になりうるか？ 日本ワーカーズコープの経験より

岡安喜三郎 協同総合研究所理事長

### 1. 組織の概要

#### 1) 協同総合研究所 (略称：「協同総研」)

(1) 英文表記：“Japan Institute of Co-operative Research (JICR)”

(2) 非営利・協同労働を推進するシンクタンク

協同総合研究所は、労働者、市民が自らの力で自律的に仕事と生活の豊かさを求める活動を支援するシンクタンクです。研究所は、わが国唯一の「労働者協同組合」に関する専門研究機関です。

(3) 約500の会員（個人・団体）で構成されています。

○ 研究所の5つの原則

- ① 人類的見地の原則
- ② 変革の立場の原則
- ③ 人間発達重視の原則
- ④ 実践と研究の結合の原則
- ⑤ 自立の原則

- 所報の発行：『協同の発見』（月刊）

## 2) 日本労働者協同組合（ワーカーズコープ）連合会(略称：「日本労協連」)

(1) 英文表記：“Japan Workers’ Co-operative Union (JWCU)”

(2) 非営利・協同労働の全国連合会

日本労協連は、労協（ワーカーズコープ）や高齢者協同組合の組織的な確立をめざし、全国的な協同労働の普及と発展、会員間の連帯と活動支援・指導、加えて、公的セクターとの対応、新たな労協設立の支援、そしてFEC自給圏の確立の開発を行っています。また国際協同組合同盟（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の会員です。

(3) 組織及び事業規模

- 組合員は 2010.3.31現在 49,205人、その内、就労組合員は 11,867人です。
- 会員事業高総計は 270億 370万円です。
- 主な事業内容は、高齢者福祉、就労支援、子育て支援、
- 建物総合管理、食・農・環境関連、協同組合間提携などです。

(4) 独自の原則の制定

運営方法について他の種類には無い労協の特徴は、ICA原則に加えて、労協独自の運営原則を労協で働く就労組合員の全員投票で決めること。最新の「定義、使命、原則」は2002年に制定しました。

## 3) 協同労働運動の歩み

(1) 1970年代：各地で失業者・中高年の仕事づくりの「事業団」誕生

- 西宮、北九州等々
- 、36団体に → 1979年「全国協議会」結成へ

(2) 1980年代：労働者が事業・経営することの意味を問う

- 1980年、ICAモスクワ大会「レイドロー報告」
- 1982年、全国協議会直営の「直轄事業団」（病院の総合管理）
- 1983年、イタリアに調査団。
- 1986年、労協組織への発展を決定。

1987年、モデル労協として「センター事業団」設立。（生協物流など）

(3) 1990年代：「労働者協同組合」と規定。その社会的意味を問う

1992年、「新7つの原則」制定。ICA加入。

1995年、三重県で高齢者協同組合が誕生。以降全国に広がる（生協法人化）。

(4) 2000年代：「協同労働の協同組合」規定、協同労働の広がり

2000年、国の介護保険制度開始。「地域福祉事業所づくり」広がる。

2002年、日韓ワールドカップ。

現在の「原則」制定。高齢協連合会結成。

2004年、指定管理者制度による受託及び子育て支援事業広がる。

4) 協同労働運動は組織原則確認の歩みでもある(別記「組織原則の歴史」参照)

○ 1979年：「中高年雇用・福祉事業団全国協議会」の結成

→「事業団7つの原則」

○ 1986年：協議会から連合会へ。労協への組織発展を決定

→「新7つの原則（改訂版）」

○ 1992年：ICA加入

→「労働者協同組合7つの原則」

○ 2000年：介護保険スタート、市民会議発足

→ 2002年「協同労働の協同組合の定義、使命、指針」

## 2. 経営と労働をめぐる諸問題

### 1) 伝統的経営論への異論 (objection)

○ 「雇用者としての協同組合」： 「協同組合事業の深刻な弱点は、一般的に、協同組合における雇用者と従業員の関係にある」「それは労働条件が悪いからでも、賃金が低いからでも、労使関係が悪いからでもない」「弱点は、これらのどれでもなく、一般的な私企業と協同組合と間で、雇用者と従業員との関係に何ら変わりがないところにある」「端的に言えば、ほとんどの協同組合は、型にはまった雇用者以上のものになろうとはしていないのである」 (Dr. Laidraw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1980, ICA)

○ 株式会社にしろ協同組合にしろ、事業体のマネジメントは伝統的に「ヒト・モノ・カネ」を効果的に活用し管理すること、と思われてきた。雇用労働関係では当たり前のパラダイムである。しかし本当にそうであろうか？ 「ヒト」のところに異論を提起したのが労働者協同

組合であると言えます。

## 2) 「多様な働き方」の名の下、非正規雇用の拡大、差別の固定化

- 1995 年当時の日経連（日本経営者連盟）が『新時代の日本的経営』の中で“長期蓄積能力型、高度専門能力活用型、雇用柔軟型の3グループの、非正規雇用を多数とする労働者の階層化”を提言した。
- その10年前の1986年制定の「労働者派遣法」は、1999 年の改正において原則自由化され、2004 年に至って製造業務においてもフリーとなる。
- 三角契約（「三角雇用関係」）により、雇用関係を不明確にする偽装雇用、偽装請負が蔓延るようになる。労働の劣化。貧弱な社会保障。すでに既存の労働法では解決しない「複雑な労使関係、誰が使用者（雇用者）かが不明確な労働実態」。
- 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事故で明らかになった「多重下請け」「原発奴隷」の実態。

## 3) 労働問題を軸にすえた、新しい社会的責任（SR）の国際的アプローチ

- Global social compliance programme (GSCP)
- (製品の仕入れに際し、生産工場などのILOの労働基準遵守)  
リファレンス・コードの基本目的は、国際労働基準とディーセントワークの十全な遵守のサプライ・チェーンを通じて、公正な労働条件の達成すること。2007年1月、ウォルマート、英国のテスコ、フランスのカルフル、ドイツのメトロで始めた。
- ISO26000「社会的責任に関する手引き」（認証の仕組みではない）  
“ISO26000SocialResponsibility:7coresubjects”  
手引きは「組織は 相互に依存する 7つの中核主題に取り組むべき」と謳う。
  - 組織統治
  - 人権
  - 労働慣行
  - 環境
  - 公正な事業慣行
  - 消費者課題
  - コミュニティへの参画及びコミュニティの発展
- “ECOLOGICAL INTELLIGENCE How Knowing the Hidden Impacts of what We Buy Can Change Everything”, Daniel Goleman
  - 地球圏への影響(geosphere impact: 土、大気、水、もちろん気候も)
  - 生物圏への影響(biosphere impact: 私たちの肉体、他の動植物の生体)
  - 社会的影響(social impact: 労働環境に対する心配など)

### 3. 新しい働き方、協同労働について

#### 1) 協同労働と、その協同組合の位置

- 「三位一体」と「三つの協同」  
協同労働の協同組合とは、働く人々・市民が、みんなで出資し、民主的に経営し、責任を分かちあって、人と地域に役立つ仕事をおこす協同組合です。
- 出資、労働、管理の「三位一体」。労働者が経営に参加する。  
(注意)「労働者が経営者になる」のではない。
- 働く者同士の協同、利用者との協同、地域との協同の「三つの協同」

#### 2) 協同労働のコア：事業所を軸にした三つの協同と小さな全体

- 三つの協同は、事業所で働く労働者を軸に実現する  
→ “Conducive Products”, “Co-Production”と相通じるものがある。
- 事業において「顧客満足型」なる評価基準を超える、「利用者とともにより良きものを創っていく」という姿勢と立場。
- 基本哲学「労働者は成長する」という信念。  
→ 「新しい公共」（市民主体の公共のあり方）のあり方へのチャレンジ  
→ 小さな全体：[仕事 から地域を見る] のか [地域から仕事を見る]のか  
事業所を軸にした三つの協同と連帯・ネットワークによって、その事業所はその地域で小さくとも全体性を持ったものになる。  
→ 会社やNPOと協同労働の「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
  - 会社や NPOの経営は、基本的にリーダー（役員）が責任を一身に負う。
  - 協同労働は、出資を通じて、働く人も責任を分かち合う仕組み。
  - この仕組みが、三つの協同を促進する。

#### 3) 協同労働 ・ 三つの協同のインパクト

- 障害者就労と就労支援
- 障害者も出資し、就労組合員となる（責任を持たせる）ことへの親の感動
- 「まめの樹」の場合：養護学校ヘルパー講座（生徒、親、教員）→就労継続移行支援事業所事業
- 若者自立塾：地元住民の参加、演劇発表会、菜の花プロジェクト。  
[http://www.cecop.coop/IMG/pdf/Microsoft\\_PowerPoint\\_-\\_Kisaburo\\_Okayasu-2.pdf](http://www.cecop.coop/IMG/pdf/Microsoft_PowerPoint_-_Kisaburo_Okayasu-2.pdf)
- 指定管理（委託）における利用者の参加
- 運営委員会、運営協議会
- 「公共施設」の位置づけ、「主体づくりとまちづくり」の據点へ

- ex1.児童館：遊ぶ場なのか、子育てのまちづくりの據点なのか
- 「**氣づきを大切に話し合う**」（例：弁当を持ってこない子供たち）
- ex2.老人福祉センター：カラオケ？ 利用者が主体となり地域をつくる力にする
- 「**支えられる存在から、支える存在へ**」
- 補足：イタリア映画 “Si può fare” の衝撃  
2008年にイタリアでヒットし注目されたもので、精神障がいの人たちが差別や偏見を克服しながら仲間とともに仕事起こしで成功し、人生を取り戻していく実話がベースです。人間讃歌、まさに「人生ここにあり」です。それを實現した組織は労働者協同組合という協同組合です。

#### 4. 多様な協同組合の存在こそ力の源泉(複合災害復興においても)

##### 1) 「多くの異種協同組合の集合体」（レイドロウ報告）は實現しえていない。

ex. 「協同組合地域社會の建設」

- 協同組合間連帯は、事業取引では「實現」しているが
- 強引な言い方をすれば、レイドロウの提起は、國連で継承していると言える。
- (「協同組合が、様々な形態によって、」で始まる一連の國連決議)

##### 2) 國連が、2012年を「國際協同組合年 (IYC)」と設定した意味

- 國連は、協同組合に何を期待しているのか
- 1992年（國連の「國際協同組合デー」設定の年）以降ほぼ 2年毎に、國連總會決議で「協同組合の振興」が提起されている。
- 1994年以降の國連決議は一貫して、「協同組合が、様々な形態によって、經濟的社會的發展に、女性、青年、高齢者、障がい者、先住民などすべての人たちの十全たる参加を促進する組織であること」を確認し續けてきた。
- 2002年には、世界体制の変化（ソ連等の崩壊、グローバリズム）後を見据えて、ILO總會で「協同組合振興勸告」を採擇した。その討議でのキーワードは、「インフォーマル經濟」と「ディーセント・ワーク」、多くは日本のこととしては注目していなかった。「見えなかった」貧困問題、インフォーマル労働、ワーキング・プア等々の認識は、2000年代半ばからである。
- (OECD報告、リーマンショック後)
- A/RES/64/136 として國連總會で採擇 (2009年12月18日)
- 國・政府等に對して、協同組合の振興、社會貢獻に関する認知度向上を要請。政府に對して、法的・行政的規制の見直しを。社會的企業と同様の活動の場を。その他、各國政府・國際機關への要請が列記されている。

- ICAでは、「社会的協同組合の世界的基準：最終版」の承認  
社会的協同組合基準は ICA理事会に提出され、今年（2002年）のマンチェスターでの ICA  
總會で議論される予定。

### 3) 日本における新しい地平を開く検討・研究（研究所のチャレンジ）

- 自然再生エネルギー開発、その事業に担い手としての協同組合の可能性  
「資源は誰のものか」、政府環境省委託研究事業 → 小水力発電など
- 被災地東北の復興・再生と新しい日本社会の創造  
林・農・海」プロジェクト  
福島→産消連帯、復興のための協同組合、再生エネルギー事業など
- 「食・農業・環境」事業、「第6次産業」分野における協同労働の可能性  
米づくり、米粉パン、菜の花プロジェクト  
経済的・社会的弱者のエンパワーメントに協同労働がどのように関わるか  
社会的企業、特に労働統合型社会的企業（WISE）での協同組合の優位性  
→ 若者支援、生活保護受給者への生活・就労支援、障害者就労支援

### 4) 「縦割り協同組合」の克服が地域・日本を変える

2012国際協同組合年の様々な企画は、それを本気に社 会に訴えるには、日本協同組合連合會設  
立が必然的に必要となる。

- その第一の契機としては、各界の著名人とともに、オール協同組合の結集でIYC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全国実行委員会が結成されていることにある。
- 第二には、大震災、巨大津波、原発災害など巨大な複合災害からの復興への協同組合の貢献  
は、個々の協同組合がバラバラでは力が十分に発揮されない。逆に異種協同組合が協同した  
時、例えば「協同組合復興會議」のような 活動で、地域における協同組合の眞の社会的価値  
が見えることになる。
- そして第三に、連合會は協同組合を世間に「見えるようにする」もっとも分かり やすい形態  
である。例えばTPPや雇用問題、原子力エネルギー問題など、国民が もっとも關心のある國  
家政策に、協同組合としての統一した見解を持ちうるなら、協同組合は國家政策に効果的に  
関与できる主体となれる。それは地域・地方自治体の政策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めざす協  
同組合は、現實の政治と經濟を変え、社会を支える協同組合である。

[まとめ]

1. ワーカーズコープには、主体面として独自の運営原則が必要である。
  - 他律的ルールではなく、自立的ルールによる持続性の担保
  - 社会的協同組合には、ICAの「社会的協同組合の世界基準」が重要
  
2. 地域と連携した「三位一体」「三つの協同」の実践によって、ワーカーズコープに社会性・持続性を持たせることができる。
  - マルチステークホルダー型協同組合（多元的組合員制度の採用へ）
  
3. 多様な形態の協同組合の存在は、障害者・失業者をはじめ様々な人たちの社会参加にとって必須である。
  - 協同組合地域社会、WISEなど。
  
4. 地域社会と世界をつなぐ。他
  
5. この様にして、協同組合は今日の代案になりうるし、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了